

맛, 멋, 흥... 활력 가득찬 장춘의 여름밤

인파가 물결치는 야시장을 누비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 복고 전차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는 사람들... 식사, 쇼핑, 오락, 관광, 공연 등 각종 야간 문화로 6월 장춘의 여름밤은 활력으로 차넘친다. 길게 줄지어 선 음식가게마다 음식경연을 펼치듯 익숙한 손놀림으로 다양한 음식을 만

들어낸다. 사람들의 탄성과 함께 등장하는 갖가지 요리들, 산해진미가 따로 없다. 이외 도시 역사 문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궈도전차' 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가 속출하면서 시민들에게 독특한 재미와 이색적인 경험을 선물하고 있다.

/ 손맹번 류향휘 기자

만상성 'MIXC YARD' 만산 도시광장



만상성 MIXC YARD 만산 (慢闪) 도시광장의 'potato corner'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서있는 고객들

장춘 만상성 도시광장에 위치한 'MIXC YARD' 만산 (慢闪) 주제 구역, 3,000 평방미터가 넘는 부지에 유행 인기 브랜드 가게들이 속속 오픈해 젊은층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인기 만점이다.



록원구 궈도전차 주제 거리

궈도전차를 배경으로 시민들이 애완견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영양제를 추천하고 있다. 궈도전차에서 한 로인이



포장마차 앞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대운발 야간 장터



시원한 저녁 바람을 쐬며 밖에서 먹는 음식은 항상 별미이다.



어린이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한 여자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시원한 물안개를 통과하고 있다.

거성 야간 장터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 젊은 여사장

친구, 식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시민들.

